

작년 수능보다는 쉬웠지만 올해 6,9월보다는 확실히 어려웠습니다. 문항 해설, 정답 해설 위주로 빠르게 올립니다.

풀자마자 해설 써서 올리는 거라 풀이에 다소 비약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.

[답을 고르기 위해 생각한 근거와 정확한 해설 간의 간극이 존재할 수 있음]

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지만 절대적인 난도는 꽤나 어려웠습니다.

법 계산 문제, 과학 보기 문제 일단 틀리고 시작한다 생각하면 1컷은 화작이든 언매든 최소 90언더로 예상됩니다.

해설 순서는 난이도 높은 순으로 다시 정리해봤습니다.

오르비클래스에서 인터넷강의를 하고 있고
메가스터디 러셀에서 현장강의 하고 있는 김강민 강사입니다.

[14-17] 과학

No.	정답	근거	난이도
14	㉓	직선의 기울기..가 증가율의 [차이]일리는 없어 보입니다.	하
	오답		%
	㉑	이때는 이 선지가 이 지문의 핵심일 줄 몰랐습니다. 기초 대사량은 체중의 0.75승에 비례하고, 체중의 0.75승은 대사 체중이니까 1번은 적절합니다.	
	㉒	1문단의 5번째 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	
	㉔	왼쪽 맨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	
	㉕	왼쪽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	

No.	정답	근거	난이도
15	㉔	마지막 문단을 보면, 대사 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된다고 했습니다. 이때 그 양은 대사 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고 했습니다. 대사 체중은 체중의 0.75승이기 때문에, 오히려 선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한다면, 쥐의 경우는 과다 복용이 아니라 과소 복용이 될 것입니다.	중
	오답		%
	㉑	60-75%면 그럴까요?	
	㉒	체표 면적이랑 비례한다면 체중의 0.67승에 비례해야 합니다. 하지만 클라이머가 낸 결론을 보면 0.67승이 아니라 0.75승이라고 했습니다. 체표 면적과 비례할 경우 = 체중의 0.67승 실제 결과 = 체중의 0.75승 체표 면적과 비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. 이 선지 또한 14번의 ㉑번 선지처럼 키포인트가 되는 선지였습니다. [소위 말하는 빌드업 선지...]	
	㉓	체중이 2배면 기초 대사량은 1.6배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.	
	㉕	0.67승보다는 0.75승이 더 많겠죠?	

No.	정답	근거	난이도
16	㉔	기초 대사량은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입니다. 이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습니다.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을 다른 방식으로 구한 것뿐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.	중
	오답		%
	㉑	패스	
	㉒		
	㉓		
	㉔		
㉕			

No.	정답	근거	난이도
17	①	<p>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고 해봅시다. 지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해본다면,</p> <p>마지막 문단에서 클라이버는 직선의 기울기로 0.75를 얻었다고 했고, 이것의 의미는 기초 대사량이 체중의 0.75승에 비례한다고 보았습니다.</p> <p>또한, 3문단에서도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의 0.87에 비례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.</p> <p>그렇습니다.</p> <p>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만약 1보다 작다면, ㉔에 ㉕가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,</p> <p>예를 들어 ㉔의 0.75승에 ㉕가 비례한다 같은 느낌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됩니다.</p> <p>평가원 미친놈들이 이게 맞냐? 이게 수능이냐? 어? 어??</p>	중
	오답		%
	②	멀리 떨어지면 편차 제곱합은 당연히 크겠조	
	③	점들의 분포는 L그래프니까 곡선이 아니라 직선 주변 분포입니다.	
	④	㉔의 증가율보다 ㉕의 증가율이 작다면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아야 합니다. (지문과 동일합니다. ex-0.75)	
	⑤	㉔의 증가율과 ㉕의 증가율이 같다면 그래프의 기울기는 1이 될 것입니다. 직선 주변에 분포할 것입니다.	

[10-13] 법

No.	정답	근거	난이도
10	④	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 법령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3문단을 봤을 때 기속 행위가 아니라 재량 행위인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.	하
	오답		%
	①	패스	
	②		
	③		
	④		
⑤			

No.	정답	근거	난이도
11	⑤	<p>마지막 문단을 보면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.</p> <p>다만, 특정 요건 하에 [재량 준칙]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 작용이 반복되어 [행정 관행]이 생긴 경우에는, [같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] 동일한 내용의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</p> <p>즉,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[선례]가 만약 있다면, [재량 준칙대로] 행정 작용을 해야 하지만, 선례가 없다면, 재량 준칙 자체를 따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.</p>	상
	오답		%
	①	<p>재량 준칙은 법령은 아닙니다. 하지만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일의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</p> <p>법령은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[일의적]인 것처럼 규정되지만, [항상]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. 항상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불확정 개념이 존재하는 상황을 제시했습니다.</p> <p>① 재량 준칙은 애초에 개념 자체가 일의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맞으나, 행정 관행이 생긴 경우에는 일의적이라는 개념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.</p> <p>즉 1번에 대한 해설은, [법령이 아니라서] 일의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, [일의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] 일의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[규정]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</p>	
	②	기속이 아니고 재량입니다.	
	③	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재량 행사 기준은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그냥 재량 준칙과 동일한 의미로 보입니다. 재량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.	
④	재량 준칙이 정해지지 않아도 행정청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		

No.	정답	근거	난이도
12	②	<p>[보기]에서 제시된 케이스는 총 3가지입니다.</p> <p>(가) 위약금 약정 자체가 없는 경우 (나)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[약정]했고,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(다) 위약금 100을 [약정]했고 위약금의 성격이 [위약벌]임이 증명된 경우</p> <p>(나)에서 을의 손해가 80이 증명된 경우는, 3문 단에 따르면 채권자인 을이 손해 액수를 증명한 경우고, 일단 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</p> <p>그런데 3문단에서 채권자는 손해액을 [증명하지 않아도] 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.</p> <p>그렇다는 것은 [증명하더라도] 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</p> <p>즉, 일단 을은 100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, 3문단 마지막에서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.</p> <p>그렇다는 것은 손해 배상 예정액은 감액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.</p> <p>정리하면, 100을 받을 수는 있으나, 감액도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</p> <p>[소유 점유]의 반환 청구권 양도와 선의 취득의 경우와 비슷한 패턴입니다.</p>	상
	오답		%
	①	(가)에서는 위약금 약정이 없습니다. 또한 [2문단]을 보면 알 수 있듯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이 안되면 그 액수만큼 받을 수 없습니다.	
	③	(나)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라고 [해도] 손해 배상 예정액인 100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만, 손해 배상 예정액은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틀렸습니다.	
	④	(다)의 경우는 위약벌의 경우입니다. 3문단에 따르면 위약벌의 경우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'도'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즉, 을의 손해가 80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합니다. 하지만 위약벌의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틀렸습니다.	
	⑤	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인 100만큼 지급해야 하겠습니다.	

No.	정답	근거	난이도
13	⑥	어휘 관련 문제는 패스하겠습니다.	상
	오답		%

[총평]
부활한 소유 점유, 준킬러.

[4-6] [가,나] 인문

No.	정답	근거	난이도
4	㉔	(가)는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 및 조선의 유서 등에 대해 서술했습니다. 실학자들의 유서에 대해 특성과 의의를 설명했습니다. (나)는 17c부터 19c까지 통시적 전개로 글을 전개하였습니다.	하
	오답	근거	%
	①	패스	
	②		
	③		
⑤			

No.	정답	근거	난이도
5	㉖	[1문단]을 보면 중국에서는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	하
	오답	근거	%
	①	패스	
	②		
	③		
④			

No.	정답	근거	난이도
6	㉚	㉚은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[토대]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설을 [반영]한 것이지,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것이 아닙니다.	하
	오답	근거	%
	①	패스	
	②		
	④		
④			

No.	정답	근거	난이도
7	㉘	㉘의 비판 포인트는 ① 심성 수양에 질실하지 않다 / ②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 두 가지입니다.	중
	㉙	하지만 2문단에서 이수광은 주자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주자학에 매몰되어 다른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한 2번 선지가 정답입니다.	
	오답	근거	%
	①	의리를 앞세운다거나, 심성 수양이 [후순위]라거나 하는 얘기를 [이수광]이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 비판 대상이 한 적이 없는 얘기를 비판 포인트로 삼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.	
	③	주자학을 강조하는 선지입니다. 이수광을 비판하는 주체의 입장의 내용이지 이수광이 할 만한 얘기는 아닙니다.	
④	이수광은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습니다. 다른 글자를 더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4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.		
⑤	우리 학문의 여러 경전으로부터 널리 배우자고 하기에 이수광은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습니다. 이수광이 할 만한 말이 아닙니다.		

No.	정답	근거	난이도
8	㉔	[보기]를 보면 임원경제지는 서학 중국 원류 설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. 이것은 [나]의 마지막 문단에서, 중화 관념에서 알피하지 않으면서도 서학 수용의 이질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합니다. 중화 관념에 구애되지 않았다고 본 5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.	중하
	오답	근거	%
	①	패스	
	②		
	③		
④			

No.	정답	근거	난이도
9	㉒	계몽하는- 어휘 관련 해설은 생략하겠습니다.	하
	오답		%
	①		
	③		
	④		
	⑤		

[총평]

전반적으로 쉬운 편이었습니다.

[1-3] 독서론 - 2번 문항에서 시간을 조금 썼을 수 있겠지만 쉬운 편이었습니다.

No.	정답	근거	난이도
1	㉔	[2문단 마지막] 읽기 환경, 과제는 상황 요인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.	하
	오답	근거	%
	①	패스	
	②		
	③		
⑤			

No.	정답	근거	난이도
2	㉔	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[문계] 되었다. 질문인 게 티가 잘 안나지만 결국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입니다. ㉔ 본인의 글쓰는 경험에서 행복을 찾았으니 5번이 정답입니다.	중
	오답	근거	%
	①	패스	
	②		
	③		
④			

No.	정답	근거	난이도
3	㉔	㉔은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㉔은 '스스로' '혼자'의 경험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. 쉽게 정답이 되겠습니다.	하
	오답	근거	%
	②	패스	
	③		
	④		
⑤			